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9월 4일(금)
(음력 7월 22일)
Пятница
4 сентября 2026 г.
№ 35 (1220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3일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해방 81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슬라와(영예)' 광장에서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1945년)을 기념하는 행진이 거행됐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의 대표부 설립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대표부가 사할린에 설립된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유리 쿨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위원장 겸 부원장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대표부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

사할린주 정부는 첨단기술과 과학의 성과를 활용한 현대적 경제구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푸틴 대통령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테크'캠퍼스가 건설되고 있으며, 향후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러시아 우주시스템' 회사와 위성 정보 협력 강화

사할린주 정부는 러시아 국영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 산하 '러시아 우주시스템' 회사와 지역 경제의 핵심 분야 현대화를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문서에 왜채슬라브 알렌코브 주정부 부총재와 '러시아 우주시스템'의 드미트리 아브타이킨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이번 협력은 기존의 단편적 위성 사진 활용을 넘어 지구 원격 탐사정보를 지역 정보 시스템에 통합하는 종합적 디지털 분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 임업, 수산업 부문을 현대화 등 하게 된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 여러분!
친애하는 향토인 여러분!

9월 3일은 소련이 군국주의 일본을 이긴 승리의 날입니다.

이날은 사할린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역사상 중대한 역할을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81년 전 제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었고, 우리 나라는 종전에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여기, 사할린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쟁 승리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이신 승리의 세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나치로부터 조국을 수호했고, 베를린에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렸으며, 동쪽에는 독일 히틀러의 마지막 동맹국이었던 군국주의 국가 일본을 물리치고, 남부 사할린에서 적들을 소탕했으며, 요새화된 슘슈섬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오래 전의 역사적 사건과 그 역사를 겪으신 분들에 대한 기억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박물관의 전시품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슘슈섬에 군 역사기념단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여러분께서 전투와 노동으로 기여하신 업적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후방에서 노동으로 지원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81년 전 그때처럼 승리가 우리 것임을 압니다.

친애하는 향토 여러분, 승리의 날을 맞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사랑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사할린주와 위대한 조국의 안녕을 위한 새로운 성취를 기원합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1주년 기념행사 거행

지난 3일(목)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해방 81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슬라와(영예)' 광장에서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1945년)을 기념하는 행진이 거행됐다.

기념행사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사할린주 정부 인사 및 주 두마 의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관계자 등, 그리고 법 집행기관 및 안보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진에 군 부대, 러시아 비상대책본부 사할린주 관리국 직원, 군 애국센터 '아방가르드'와 '워인'의 생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광장을 행진했다.

관람석에는 대조국전쟁과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용사들,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 영광의 기념비와 불멸의 성화 앞에서 붉은 장미와 카네이션 헌화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1945년 8~9월 남사할린 공세 작전과 쿠릴열도 상륙 작전에서 전사한 영웅들을 기리며 묵념했고, 기념비 주변은 꽃으로 덮였다.

올해부터 이 행사에 정오에 총성을 울리는 '정오의 예포' 의식이 처음으로 진행돼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예포는 바로 사할린과 쿠릴 땅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날은 사할린주와 쿠릴열도 주민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념일 중 하나로 지키고 있으며, 조국 땅의 자유가 어떤 대가로 쟁취되었는지, 그리고 승리한 세대의 위업을 일깨워 주고 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예식 기자)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사망한 사할린동포 자녀 등의 영주귀국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
신청 · 결정 통지 시기 조정하여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진다.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이 9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도 명확히 했다.

영주귀국 절차도 한 달 빨라진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마감일을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 앞당겼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들은 귀국 준비기간을 더 가지는 동시에, 한국에 더 이른 시일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등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에도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뿐만 아니라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국적판정 절차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추가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들의 높은 영주귀국 수요와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내년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예산을 올해 78억원 대비 74.4% 증가한 13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2027년에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보다 156.4% 증가한 규모로, 약 2.6배 수준이다.

※ 2023년 258명, 2024년 265명, 2025년 232명, 2026년 234명 영주귀국 선정

이와 함께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관련 훈령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도 대상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협 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 제출 서류에 관한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9월 11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모저모

〈러시아의 말. 코르사코브. 사할린〉 도서축제에 수백 명 모여

8월 29일 제2회 책과 독서축제가 코르사코브 강변에서 열린 가운데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올해 축제 프로그램은 코르사코브 시의 이름이 된 동부 시베리아의 총독 미하일 코르사코브 탄생 200주년과 사할린주 형성 8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되었다. 코르사코브시의 시장 나탈리야 쿠프리나는 "도서축제가 이제는 하나의 전통으로 바르게 자리잡았다. 올해 도서축제는 우리의 버팀목이자 힘, 문화적 코드인 러시아의 말과 러시아어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러한 축제는 과거에서 현재로, 지식에서 창조로 시간의 연속성을 체감하게 한다."고 말했다.

축제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사할린의 역사였다. '코르사코브와 그 시절' 역사의 오솔길에서 방문객들은 미하일 코르사코브와 극동지역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고, 그에게 편지도 쓸 수 있었다. 〈사할린주 80주년〉 행사장에서는 사할린 지역의 역사와 사할린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었고, 모녜론 디지털 관광과 '사할린 : 새로운 시작80년' 퀴즈대회가 열렸다.

어린 참가자들을 위해서 '시인 아그니야 바르토의 나라'가 진행돼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게임과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사할린의 작가들만의 행사장도 마련되어 〈의미의 교향곡〉, 〈살아있는 도서관〉 행사장에서는 작가들과 시인, 특수군사작전 참전 창작가들과 학생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나의 성명은 도시의 이름〉 강연장에서는 러시아 지리학회 사할린 지부 회원인 옐레나 라슈프키나가 코르사코브 명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이후 〈주목, 질문해!〉 지식경연대회 결승 진출자들인 코르사코브 제2호 학교의 학생들이 의상을 갖춰 입고 연극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북크로싱(책 나눔)'에서 책들을 교환하고, 대형 십자말풀이를 풀며, 강변에서 독서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예술의 거리' 행사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도시' 경연의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활동교실의 참가자들은 벽 장식품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도서축제의 마무리는 알렉산드르 로파틴이 지휘하는 사할린 교향악단이 러시아의 고전음악 작품을 연주하고, 사할린국립대학 이완 마흐토진의 시낭송으로 막을 내렸다. 코르사코브 시행정부는 예술가들의 전문성과 축제 진행 및 전통문화 대중화에 기여한 예술가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도서축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문화환경의 발전을 위한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일상생활의 일부인 문화를 조성하는 새로운 여가 방식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Библиофест «Русское слово. Корсаковъ. Сахалин» собрал сотни гостей

Второй фестиваль книги и чтения прошел 29 августа на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Корсаковки и объединил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у посвятили 200-летию Михаила Корсакова,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в честь которого назван Корсако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оящему 8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иблиофест стал уже традиционным, что правильно.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 русскому слову и русскому языку — нашей опоре, силе, общему культурному коду. Важно и то, что такие праздники помогают на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вязь времен: от прошлого — к настоящему, от знаний — к созиданию", — сказала 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те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аллее «Корсаковъ и его время» гости могли больше узнать о Михаиле Корсакове, его роли в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написать ему письмо. На площадке «80 л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ли хроник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артины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виртуальную экскурсию на Монерон и квиз «Сахалин: Перезагрузка 80».

Для юных участников работала «Страна Агнии Барто», где дети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играх и викторинах. Свои площадки получили и сахалинские авторы. В «Симфонии смыслов» и «Живой библиотеке» выступили писатели, поэты, авторы — участники СВО и школьники.

В шатре лектория «Имя города — фамилия человека» член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Елена Ращупкина-Лопухина рассказала об истории названия Корсакова. После этого финалист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турнира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 — учащиеся школы № 2 — показали костюмированную сценку.

Гости также могли обменяться книгами на буккроссинге, решить гига-кроссворды и почитать на берегу реки. В «Арт-Квартале» представили работы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конкурса «Мой любимый город», а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создали арт-панно.

Завершился библиофест концертом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главного дирижера Александра Лопатина. В 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русских классиков, стихотворения которых читал студент СахГУ Иван Махтодин.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клад в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я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артистам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Библиофест стал частью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ой сред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мечал важность новых форматов досуга,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яют жител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и делают культуру частью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9월에 개최하는 〈IT딕탄트〉 디지털 이용 실력 검증에 주민들 초청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누구나 디지털 기기 및 소셜미디어, 온라인 보안 및 금융에 대한 지식 정도를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IT딕탄트(아이티 단답시험)〉은 전국 행사로서 누구든 디지털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이며, 튜멘주 정보통신청에서 주최하여 2018년부터 전국 각 지역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러시아 연방 디지털개발.통신.대중매체부가 전했다.

올해9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IT딕탄트〉는 '러시아 연방 아이티 딕탄트 ит-диктант.рф.'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참가자들에게 7개 영역 - 디지털 소비, 온라인 금융과 쇼핑, 디지털 보안,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인식, 소셜미디어 사용과 콘텐츠(창작물) 제작, 정보검색 및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에 따른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된다.

〈IT딕탄트〉 대회 후에 주최 측은 각 지역들의 참여도를 집계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디지털 세계에서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가 어려움을 주는지, 어디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계된 통계는 대학들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сили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цифровые навыки: ИТ-диктант пройдет в сентябре

С 11 по 13 сентября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насколько хорошо разбираются в гаджетах, соцсет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финансах в интернете.

ИТ-диктант — это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где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в цифровой сфере. Организатор — Департамент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8 года акция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ит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ИТ-диктант пройдет с 11 по 13 сентября на платформе ит-диктант.рф.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ожат тестовые задания разного уровня сложности по семи направлениям: цифровое потребление, финансы и покупки в интернете, цифров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критиче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информ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цсетей и создание контента, поиск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же работа с цифровыми устройствами.

(8면에 계속)

다큐멘터리 영화 '박노학: 집으로 가는 길'을 환영해 주세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추진 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故 박노학 선생은 1959년에 일본에서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를 창설하고 30년간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 운동에 평생을 바친 분이다. 이번 영화 〈박노학〉은 바로 이분의 삶과 투쟁, 그리고 유산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라고 새고려 신문사가 밝혔다.

나는 25년 동안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박노학 회장의 업적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삶과 공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박노학과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 '박노학과 송두회', '박노학과 허조', '박노학과 도만상' 등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이 실현된 데는 박노학 선생의 희생과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사할린 한인 역사를 올바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잊혀진 박 선생의 공덕을 기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들과 사할린 동포 지원단체 관계자 등은 «故 박노학 회장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 추진위원회)» 를 결성하고 2013년 1월 10일 첫 발기인 모임을 열었다. 내가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은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박노학 회장 동상 및 기념비 건립, 기념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박 회장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었다.

국내에서 박노학 회장을 도와 편지 전달에 나서기도 했던 장남 박창규(76) 씨는 "3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위해 헌신했으나 소외된 채 잊혀가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할린 한인 현안이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발기인 첫 모임에서 일제 강점기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해방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일본에서 1958년부터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이후, '화태 귀환 재일 한국인회'로 명칭 변경)를 조직하여 1988년까지 '우편배달부' 역할을 했던 故 박노학 회장의 뜻을 기리고 그 역사를 후세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 전국 사할린 영주귀국자 단체 협의회»(권경석 회장)에 이 내용을 제안하고, 내용을 널리 확산시키기로 했다. 동상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부산에 건립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내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고, 여기에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별도 코너의 구성은 역사박물관의 동영상 전시를 참조하여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매월 1회 참석하였고, 추진위원회의 탄원서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국회(관련 상임위장)에 제출하였다. 방일권 박사가 참석하여 조언을 했다. 인터넷상에 전시실을 만들어 짧은 영상제작과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모금활동들도 활용하고, 소책자 제작과 판매를 통한 수입사업 등 단계적으로 모금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2014년 5~6월에 박노학 회장 동상 건립에 대해 임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 추진위원회'와는 연계되지 않았으나, ' 사할린 단협'이 2014년 7월 4일 안산에서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故 박노학 회장의 동상 건립 준비위원회를 창립하여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사업을 진행하여 2014년 11월 8일 경기도 안산 «고향마을»에 故 박노학 회장 흉상을 세웠다.

2015년 9월에 한국 이민사박물관 (인천)이 광복 70주년과 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국내 최초로 '추진위원회' 박승의 위원장의 제의를 기초로 사할린 한인 사회단체와 협력, 현지 유물을 대여해 전시하는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특별전을 9월 21일~12월31일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홀과 영상실에서 개최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인들은 모국의 무관심과 소련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귀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할과 사할린 한인들의 귀국 노력 과정, 영주귀국과정을 조명했다.

(7면에 계속)

동포 목소리 예산에 담아… 2027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369억원 편성

올해보다 21.4% 증가...개청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중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확대,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사업 추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1,127억 원보다 242억 원(21.4%) 늘어난 1,369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 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와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60억), 민원과 소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34억).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지원(+58억)과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기념 사업(+73억) 등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한글학교 지원 확대... 올해 대비 30%↑ 증액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195억 원에서 2027년 255억 원으로 30% 이상(6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현재 평균 26%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되며, 중장기적으로 최대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글학교 지원 확대는 그동안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

동포단체 활동과 한인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국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 한인대회 개최 지원도 강화해 동포사회 내 교류를 촉진한다.

민원·소통 한 곳에서...'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와 소통 창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처음으로 34억 원을 투입한다.

플랫폼에는 민원 처리와 정책 정보, 쌍방향 소통, 동포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 동포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여권·사증(비자)·재외선거 외 재외국민 민원 서비스를 처리하는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인증시스템(G4K)의 노후 정보자원도 교체한다.

사할린동포 귀국 지원 늘리고,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기념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린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78억 원에서 136억원으로 70% 이상 확대한다.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국내외에서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약 86만 명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외 우수 동포 청년이 국내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국내 기업 인턴십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동포사회가 현장에서 제기해 온 요구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며 "한글학교 교육환경부터 민원서비스, 귀환과 정착까지 동포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는데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연해주 독립 유공자를 찾아서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학 만

관리번호	7090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학만	한자	金 學 萬
이명	金學滿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미상		

공훈록

1907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계동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고, 1910~1914년 노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거류민회 회장, 성명회 조직, 권업회 총재로 활동하였고, 1911~18년 중국 밀산현 봉밀산 일대의 독립군기지 개척을 위한 한인촌 건설에 매진하였고, 1921년에는 노인동맹단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07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서 계동학교(啓東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활동한 데 이어 1908년 명동학교(明東學校)·동흥학교(東興學校)·선흥의숙(鮮興義塾) 등 학교 설립과 운영을 적극 후원하였다. 1908년 1월경에는 함북에서 이강년(李康秊) 의병부대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10년 노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거류민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1914년까지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8월 경술국치 소식이 전해지자, 신한촌에서 이상설(李相卨)·유인석(柳麟錫)·이범윤(李範允) 등 6명과 함께 성명회(聲明會)를 조직하여 취지서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각국에 호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범윤(李範允)의 독립군부대 편성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후원하였다. 1911년 5월 항일운동단체인 권업회(勸業會)가 창립되자, 그해 12월 총재로 선임되었으며, 1911년부터 1918년까지 이승희(李承熙)와 함께 중국 밀산현(密山縣) 봉밀산(蜂密山) 일대에 독립군기지 개척의 일환으로 한인정착촌인 한흥동(韓興洞)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917년 9월 대동단결선언서(大同團結宣言書)와 찬동통지서를 받고도 봉밀산에 있던 탓에 서명하지 못하였다.

1919년 2월 중국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이른바 戊午獨立宣言書)에 서명하였다. 1921년 노인동맹단(老人同盟團)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러시아 極東 및 北滿洲지역 排日鮮人 有力者名簿(國家報勳處, 1997) 25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권 66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94, 747, 77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권 11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200, 203면
· 東亞日報(1936. 4. 1)
· 皇城新聞(1907. 5. 29, 1908. 4. 23)
· 海朝新聞(1908. 3. 12. 3. 24, 4. 5, 4. 7, 4. 22, 4. 30)
· 勸業新聞(1912. 9. 8, 12. 19)
· 獨立新聞(1920. 3. 30)
· 백원보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1. 12. 19)(독립기념관 소장)
· 10월 25일 이후 浦潮斯德지방 조선인에 관한 정보(1911. 11. 15), 조선인 근황 보고의 건(1911년 11월 이후 4개월간의 정보를 종합한 보고)(1912. 2. 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3
· 1912년 11월 調 在外 不良鮮人의 언동(1913. 3. 7), 浦潮地方 在住鮮人상황(1914. 1.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4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оект поправок к Указу о применении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тверждён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1 сентября

Определен перечень документ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МЖ детьми и друг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скончавшихс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корректированы срок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и 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инятых решениях, что позволит ускорить репатриацию

Даже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их дети смогут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на поддержку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на родину, начин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рок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о включении в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также переносятся на месяц раньше, что ускоряет процесс репатриации.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корейцы, род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или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 (пункт 1 статьи 2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 Ким Гён Хёп) сообщило, что 1 сен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и утверждён проект частичных поправок к Исполнительному указу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алее —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указ).

Данное изменение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указа обусловлено вступлением в силу 11 сентябр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новой редакции (далее —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круг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на ПМЖ расширен за счёт включения супругов и детей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супругов их детей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Самым главным изменением стало нормативное закрепление перечня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упругам, детям и супругам детей скончавшихс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МЖ. Чётко определены документы для каждой категории заявителей: помимо свидетельств о браке и рождении, это выписки из семейного реестра (제적등본), решения о признании пострадавшими 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а также справки о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ях.

Процедур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МЖ также ускоряется на месяц. Крайний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обустройства и стабилизации жизни перенесён с 30 апреля на 31 марта, а срок уведомления о включении в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 с 31 июля на 30 июн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отобра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получат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подготовку к переезду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могут прибыть в Корею в более ранние сроки.

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м указе также детально прописаны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обустройства в стра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пособ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базовом обеспечении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содействие в процедуре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быт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по социальным услугам,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правовы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вопросов.

В перечень обязанностей, делегированных Обществу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мимо организации визитов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ддержку и 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инятых решениях,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добавлены фактически выполняемые ими задачи. Среди них: оплата авиабилетов и выдача подъемных средств (пособий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обустройство), поддержка в процедурах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ознакомление с социальными услугами.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жидает, что из-за расширения круг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число заявителей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МЖ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астёт,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ведомство также продвигает план по увеличению объёма поддержки.

Учитывая высокий спрос со сторон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МЖ, а также суть двух пакетов поправок к 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от 2024 и 2026 годов), Агентство провело переговоры с бюджетным ведомством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объемов поддержк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результате бюджет на будущий год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в размере 13,6 млрд вон, что на 74,4%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годом (7,8 млрд во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ставя цель вернуть на родину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в течение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202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квоту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по программе до 600 человек. Это на 156,4% больше (примерно в 2,6 раза), чем количество одобрен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2026 году (234 человека).

※ *Количество одобрен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МЖ по годам: 2023 год — 258 человек, 2024 год — 265 человек, 2025 год — 232 человека, 2026 год — 234 человека.*

Кроме того,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смотре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нутренние инструкции, определяющие приоритетность отбора кандидатов, чтобы применить их уже при отборе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Ким Гён Хёп заявил: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е должна исчезать изза того, что родители ушли из жизни первыми».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Мы самым тщ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позаботимся о процесс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МЖ и обустройства в Корее, чтобы эти системные улучшения принесли ре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в жизни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так долго ждали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Проект частичных поправок к Исполнительному указу, утверждённый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1 сентября, вступит в силу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Полож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перечня документов,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с 11 сентября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поправок к закону), а остальные — со дня официальн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ия.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д выполнен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успехом прошла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Пак Но Хак: дорога домой»

26 августа в ККЗ «Октябрь» в рамках кино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ной экран. Сахалинские авторы» состоялся 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Пак Но Хак: дорога домой» (режиссёр Антон Дока).Это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проект о человеке, который оказал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судьб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вятив свою жизнь борьбе за возвраще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родину.

Режиссёром выступил Антон Дока, известный п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му фильму «Местные». Продюсерами ст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сков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им Тхе Ик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увековечению памя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к Но Хака» Пак Сын Ы.

Съёмочная группа собрала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атериалов, 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ъёмки проходили с марта по май на Сахалине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Монтаж фильма длился три месяца. Как и в фильме «Местные», автором музыки стал режиссёр Антон Док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фильма – 60 минут.

Перед премьерой «Пак Но Хак: дорога домой» в 18:30 зрителям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Местные» (режиссёр Антон Дока,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созданный в 2025 году. Многие зрители посмотрели в этот вечер обе лент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показа «Пак Но Хак: дорога домой» на сцену вышли создатели обоих фильмов – режиссёр Антон Дока, продюсер «Местных» Сергей Ха, а также продюсеры новой картины Пак Сын Ы и Ким Тхе Ик. Они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зрителей и ответили на вопросы. Многие из задававших вопросы восприняли «Пак Но Хак: дорога домой»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Местных». В обоих фильмах поднята тема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рители отмечали особый режиссёрский почерк.

Часть экспертов, к примеру, старший сын Пак Но Хака – Пак Чхан Гю,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Дин,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Че Сан Гу,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обоих картинах.

В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ленте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японский адвокат Такаги Кэнити, бывший продюсер KBS Юн Сок Хун,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Пан Иль Гвон,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Чунан О Иль Хван, профессор Соф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пония) Ли Ен Сик,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Тен Ен Сун и другие.

Зрители благодарили создателей за бережное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динодушно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крайне важно, чтобы это наследие было передано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На показах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гости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ин из них сказал: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авторам, что дали эстафету таким фильмам, которые заставляют нас переживать вместе с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Радует, что эту важную историю помнит и сохраняет для нас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Эти фильмы подчёркивают силу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ух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зрители не скупились на аплодисменты и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родюсеры Ким Тхе Ик и Пак Сын 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ак Но Хак – великая личность, а его борьба за возвраще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это героический подвиг, который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памяти потомков.

Создатели «Пак Но Хак: дорога домой» пообещали показать фильм не только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но и в Корее.

Проект был реал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осков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на пожертвования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Виктория БЯ.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градил южнокорейскую переводчицу медалью Пушки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ереводчица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им Чжон А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Пушкина. Указ о ее награждении подпис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переводе Ким Чжон А был издан сборник глав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Фёдора Достоевского — в него вошл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Бесы», «Идиот» и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Переводчица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им Чжон А сама активно внедряет в соб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элементы мировоззрения Достоевского, а её некоторые деловые результаты стали возможны,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её опыту как,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Интерес к творчеству Фёдора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Южной Корее огромный, считает

Ким Чжон А. По словам переводчицы, продажи книги в Корее превысили ожидания и составили почти 220 000 долларов.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и Сон Рак: РК будет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действия с США

РК будет тесно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с США, чтобы возобновление диалога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привело к ощутимому прогрессу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28 август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и Сон Рак. Сеулу следует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Ш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возобнов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диалога привело к прогрессу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мирного режим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отметил он. Коснувшись предлож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 диалоге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ом, Ви Сон Рак заявил, что Сеул планирует помочь укрепить доверие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чтобы усилия Трампа привели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диалога.

В РК разработана бронирован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машина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сообщило 31 августа о завершении разработки бронирова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машины.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она создана для безопасно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раненых солдат с передовой линии фронта в госпитали. Кроме того, она обеспечит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отдалённых районах. Автомобил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военным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позволяют обеспечить экстренную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из-за низкой мобильности и недостаточной защиты. Агентство планиру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серийный выпуск таких машин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их поставок в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Число медицинских туристов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Согласно отчёту,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30 августа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развития индустр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2025 году в стране побывали 2.011.822 иностранца с целью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Это на 71,9%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 30,8%. Далее следуют туристы из Японии (29,8%), Тайваня (9,2%) и США (8,6%). Большинство пациентов дерматологических клиник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 35,0%, а туристы из Япони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30,5%.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пациентов пластических хирургов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Японии – 42,0%. Пациенты из Китая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24,5%. Что касается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х клиник, то 22,0% их пациентов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Монголии, за которыми следуют пациенты из США - 20,3%.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РК дл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США - 24,1%, за которыми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Китая - 13,7% и Казахстана - 8,3%.

Четыре песни группы KATSEYE в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После того, как альбом WILD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гёрлз-группы KATSEYE возглавил главный альбомный чарт США Billboard 200, её четыре песни вошли в чарт синглов HOT 100. По данным Billboard от 25 августа, песня Animal из альбома WILD занимает 24-е место, поднявшись на 6 позици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й. Песня Hootie frutti дебютировала на 31-й строчке. Ещё один хит группы под названием Pinky up занял 81-е место, а песня Iconic by mistake, записанная совместно с группами LE SSERAFIM и ILLIT, 94-е место. В том же чарте HOT 100 песня Dracula,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Дженни из BLACKPINK и Tame Impala, сохраняет 8-е место уже 47-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В альбомном чарте Billboard 200, помимо альбома WILD, находящегося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рисутствуют ещё два альбома группы KATSEYE. Beautiful chaos находится на 92-м месте, а SIS (Soft is strong) - на 156-м.

Более 50% южнокорейцев негативно относятся к США

55% южнокорейцев относятся к США «неодобрительно»,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39%.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25 августа америка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изуч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Pew Research Center. Доля тех, кто относится к США «одобрительно», составила 45%. Доля относящихся к США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о» выросла за год с 9% до 18%. Резко упало также доверие к США. Лишь 57%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ли США «надёжным партнёром» РК против 83% в 2022 году, когда этот вопрос задавали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Доля тех, кто считает вклад США в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большим или значительным» сократилась с 74% в 2023 году до 47%. При этом военный альянс с США жители РК по-прежнему считают прочным: 84% назвали эту страну самым важным союзником.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в РК с 3 марта по 4 апре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среди 1.045 взрослых респондентов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го всемир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2026 Global Attitudes Survey.

RKI

Ким Чен Ын сменил руководство армии и наградил создателей нового оружия

В КНДР произошли заметные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руководстве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менился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на одну из ключевых должностей в системе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еожиданно вернулся военачальник, которого всего полгода назад фактически вывели из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роведены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органах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и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наградил ученых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разработке нов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Как сообщили 30 авгус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кадровые решения были приняты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наканун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Ким Чен Ы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й военной комиссии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Этот орган игра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ую роль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истеме власти: именно через него партий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пределяет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о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осуществляет контроль над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ссии является сам Ким Чен Ын.

Самой примечательной частью перестановок стало возвращение в высшее вое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ак Чон Чхона. Он вновь назначен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льной военной комиссии ТПК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озвращен в соста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и Политбюро партии.

Фактически Пак снова становится одной из центральных фигур, отвечающих за проведение военной политики КНДР.

Возвращение выглядит особенно неожиданным на фоне событий начала года. На IX съезде ТПК в феврале Пак Чон Чхон лишился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важных постов: перестал быть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льной военной комиссии, членом Политбюро и секретарем ЦК. Тог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дполагали, что 69-летний военачальник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ходит от дел. Однако уже через полгода он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ил свои пози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большой опыт Пака,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и ракетной сферах, и допускают, что возвращение проверенного военачальника призва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еспечить устойчивость командования и ускорить модернизацию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изошла смена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Но Гван Чхоль освобожден от этой должности, а новым министром назначен Ким Сон Ги, до сих пор возглавлявший Глав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При этом Но Гван Чхоль вовсе не исчезает из руководства: он переведен на пост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во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ЦК ТПК - структуры, имеющей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управл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ПК.

Поэтому его перемещение можно трактовать двояк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 был выведен и из ряда руководящих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что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б элементе взыскания. С другой - ему доверено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ное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и развитием вооружений.

Ряд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поэтому считает произошедшее не простой опалой, а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м кадров в пользу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блока.

Перестановки затронули и структур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твечающие за политический контрол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внутри арми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КНА Ю Гван У назначен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рми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веден в Политбюро ТПК. Его прежний пост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нял Ом Чжу Хо, ранее бывший политическим комиссаром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Он также введен в соста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менения затрону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оенн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партий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систему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Перестановки происходят на фоне начатой Пхеньяном кампании по наведению порядка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обычно открыто говорило о случаях коррупции и серьезных нарушениях дисциплины среди военных. Характер назначений позволяет предположить более широкую задачу: Пхеньян одновременно перестраивает систему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управления военным производством на фоне ускорен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кадровыми решениями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л отдельную встречу с учены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сновных оборонных нау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траны, участвовавшими в разработке новых боевых систем и повышении 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ручил 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включая звания героев, ордена и медали.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о создани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меющих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вооружений, однако не раскрыл, о каких именно разработках идет речь.

В итоге нынешние решения выглядят не столько обычной кадровой ротацией, сколько комплексной перестройкой нескольких связа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звеньев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НДР.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новь выдвигается опытный Пак Чон Чхон, меняется руковод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иливаются структуры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силового контроля внутри армии, а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воен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ереводи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блок. Всё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момент, когда Пхеньян продолжает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и производить новые виды вооружен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менил сразу шесть министров. Зачем президенту Южной Кореи понадобились круп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провел крупную перестановку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шив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менить руководителей шести министерств, включая ключе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оборонный и юридический блоки. Кадровы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ят на фоне стрем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своей политике, а также резко обострившегося конфликта президента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Чо Хи Дэ по поводу назначения новых членов высшей судебной инстанции страны.

Как объявила 30 август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о экономике и министром финансов предложено назначить нынешнего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ы ведомства Ли Хён Иля. Это кадровый чиновник, много лет занимающий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ой. Именно ему предстоит отвечать з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ур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споров вокруг увели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асходов и ситуации на финансовых рынках.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выдвинут депута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им Сын Вон, являющийся одним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е. Это назначение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с учетом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в стране масштабной реформы прокуратуры и остр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ластей с частью юрид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овым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должен стать отставной генерал Кан Син Чхоль, ранее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командующего объединенным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ША, 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работавший послом Южной Кореи в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 главе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оставить человека с большим опытом работ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систем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оюза.

Сменятся руководители еще трех ведомств. Министром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предложен нынешний второ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Хон Чжи Сон, министерство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должен возглавить депута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Ли Со Ён, а министром по вопросам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семьи выдвинута лидер небольшой Партии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Ё Хе Ин. Последнее назначение, как и привлеч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союзных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на ряд постов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попытку Ли Чжэ Мёна укрепить более широкий про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лагер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перестановка должна обеспечить "ре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граждане", а основным критерием при подборе кандидатов были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ачества. Однак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обраща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одновременную замену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ице-премьера и министра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Это связывают с недовольством населения налоговой и жилищной политик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вшим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снижения рейтинга президен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 вс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тоги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Минист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я Чекунков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яда ключевых федер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и глав регионов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ходит на площадке кампус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ткрывая совещание,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Арктика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ысокую динамику хороших, позитивных изменений. Теперь обсуждается переход от локаль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на отде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к единому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му режим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Арктике в целом.

- Также анонсировалось введение во всех субъект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особого правового режим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более оперативно, без лишних барьеров внедрять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Подчеркну: фактически речь идёт о нов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огда особые,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смелые правовые новации становятся привычной нормой, характерной чертой делового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региона. Такой подход, устремлённый, как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говорят, в будущее, нацеленный на динамич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 арктических регионов,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сохранить,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доложил об основных параметрах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едином бесшовном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м режиме. По его словам, для любого инвестпроекта сохранен принцип одного окна и двух ключей.

- «Одно окно» – это едины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 резидент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и сопровождает каждый проект на всём его жизненном цикле. «Два ключа» – это федеральный и региональный. Каждый проект должен быть поддержан и самим регионо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оскольку издержки для бюджетов в виде льгот и прибыль для бюджетов формируются 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и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Предусмотрен ряд значительных льгот для резидентов едино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озможность инвестирова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ли в Арктике и сокращать налоги соз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мотивацию для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макрореги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читает особо важным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прос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которая базируется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связала все субъекты макрорегиона.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 2,7 миллиона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К 2030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должен вырасти до 4 миллионов.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новить авиапарк комп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приняло такое решение. До 2030 года «Аврора» должна получить 45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Это 18 самолетов – ИЛ-114, 19 вертолетов Ми-171А3 и 8 самолетов «СуперДжет». Авиация будет и впредь доступной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ля все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 макрорегионе,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по-прежнему находитс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евозк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ет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субсидируютс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охранять цены на доступном уровне.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доложили об итогах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и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вели итоги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и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этом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в островной вуз участвовали 2,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Абитуриенты подали почти 8 тысяч заявлений на раз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новится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Это итог системной работы. Уже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мы на четверть увеличиваем прием на бюджетные места по программам бакалавриата и специалитета. Привлекае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студентов и статус опорного вуза Газпром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университет выполняет контрольные цифры приема. Всего первокурсника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вуза стали 1064 человека, из них 695 будут учиться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На места в СахГУ претендовали выпускники школ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Больше всего мест – 911 – занял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Наибольший конкурс состоялся на напр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 32 заявления на место. В пятерку сам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также вошли «Юриспруденция», «Социология», «Нефтегазовое дело» и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 Больше всего нас радует, чт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тали выбирать именно Сахалин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обуч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таких ребят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в четыре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2024 году,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кньков отметил, что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целом растет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вузов и колледжей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53% выпускников островных школ остались учиться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доброволь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ают специальным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Еще 16 волонтер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достоены нового знака отличия «Доброволе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режденного в реги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наками поощр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 вклад в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К участникам церемонии обрат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ручинин:

— Россия всегда была сильна духом добра и бескорыстной взаимопомощи. Хочу от имен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казать вам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за ваш труд. Вы касаетесь судеб сотен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казываете помощь тем, кто находится в непростых жиз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Знак «Доброволе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признание ваших заслуг.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сообщество надежных людей, на которое могут опереться и наши жители, и власти. Вам доверяют, на вас надеются, потому что у каждого из вас крепкие руки и доброе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Знаками отличия были отмеч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Россий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МыВместе»,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СОВА», движения «серебряные добровольцы»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ициатив.

— Движение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8 года. Мы развиваем обучение по первой помощи, проводи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беседы с населением о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ях, пропагандируем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донорство, рассказываем маленьким школьникам о героях-медиках,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ш ключевой проект называется «Добро в село». Волонтеры,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студенты-медики, выезжают в ФАПы малонаселенных сел и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на месте: под контролем действующих медработников проводят медицинские осмотры 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 рассказала одна из награжденных,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олонтеры Меди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ктория Качаева

Среди награжденных – организатор проекта «СВОя семья» Наталья Каурова.

— Наша семья столкнулась с потерей близкого человека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2022 году. Это стало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ы начали объединять семь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Помощь другим помогла нам справиться с горем. Мы оказываем мо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через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ервый вид спорта, который нас породнил, - это горные лыжи. В этом сезоне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попросило добавить сноуборд. Также вместе мы освоили и сапборты, и ролики, и плавани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ерлингом, с конным видом спорта, занимались в батутном центр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нашего клуба мы организуем заняти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К какой бы организации ни обращались, все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ше движение, не было ни одного отказа,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Каурова.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новым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Доброволе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ят 1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посетил торжественную линейку в школе №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бывал в школе №6 и поздравил ребят, родителей и учителей с Днем знаний.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за парты сели 62 7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них более 5800 — первоклассники.

– Дорогие ребята, вы –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тенах школы вы проходите первые уроки жизни и вырастаете настоящими патриотами, которые ведут нашу страну в будущее. Смотрю сегодня на первоклашек. Через 20 лет вы будете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науку,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на островах, станете грамот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мотрю и на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 будущих студентов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который создается в нашем город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вы пройдете предуниверсариум и подготовитесь к поступлению на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Это нефтегазовое дело, экономика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други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здравляю с праздником школьников, учителей и, конечно, родителей!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Юная София Боярская призналась,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торжественная линейка для нее стала особенно волнительной.

– Я иду в новый класс. Жду встречи с учительницей. Еще интересно, какие новые предметы появятся, сложные они или нет, – поделилась школьница.

А для Владислава Тяна этот учебный год – ответственный этап перед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вуз.

– Хочу учиться в СахГУ. Зачем куда-то ехать, если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так быстро развивается? Также привлек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ходить стажировку на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Меня интересует геология в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е. Нужно будет сдавать географию,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рофильную математику. Весь год буду усиленно готовиться к экзаменам, – рассказал будущий выпускник.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успешную приемку прошли 360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ов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 «Семья»,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еображают школы и детские сады в регионе. Так, например, в сельской школе в Сокол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мастерские, спортзал и санузлы. Капитальные работы охватили также четыре детсада: «Ромашк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тровок», «Золотой петушок» и «Солнышко» в Корсакове. Продолжается обновление фасада школы №1 в Ногликах.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в День знаний на островах стало открытие долгожданной школы на 288 мест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Уроки теперь будут идти в одну смену. Предусмотрены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занятий творчеством и спортом.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с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на 100% обеспечили учебниками. Закуплено свыше 123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в том числе новые учебники по истории 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31 школа – 18 из них расположены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получила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кабинетов физики, музыки и ИЗО: от микроскопов и телескопов до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 гипсовых моделе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как идё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на горе Красной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етил гору Красную, где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ассажирской подвесной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Красная-Юг» и новых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ведутся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Протяженность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составит около двух километров. Сейчас на площадке выполняются земляные и монолитные работы. Подготовлены фундаменты ряда опор. На одной из них уже завершены армирование и бетонирование. Еще на нескольких опор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устройство фундаментов. Для выхода на проектные отметки переработано около 3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грунта.

На склоне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ы профили будущих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В дальнейшем их приведут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нормами. Всего к 202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14 километров новых трасс.

— Для Сахалина это не просто новый объект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Это территория, которая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круглый год и становиться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Важно, чтобы вместе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здесь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активного туризм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Самсон» Игоря Солдатова, планируется комплексное освоение территории горы Красной.

— Мы планируем сделать жемчужину из курор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нной локац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 нас входит пятизвездочная гостиница с видовым рестораном и четыре апарт-отеля класса четыре звезды. По графику у нас в 2030 году стоит ввод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 сказал Игорь Солдатов.

На объекте сейчас работают около 30 человек, задействованы семь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Поставка основ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Красная-Юг» запланирована поэтапно.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Красная-Юг» станет частью проекта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Долина Айна».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не менее 30 километров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Первый этап гостинич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2030 году, второй – в 2035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다큐멘터리 영화 '박노학: 집으로 가는 길'을 환영해 주세요!

(3면의 계속)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특별전의 제3부 '귀국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와 박물관이 공동 주최하여 박노학 회장이 '사할린 억류귀환 한국인회'를 결성해 '귀국희망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생토록 한인의 귀국을 위해 앞장섰으며, 박 회장과 함께 일본인 변호사 다카기 켄이치가 일본의 양심세력과 함께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과 보상을 요구하는 3차례의 큰 소송을 진행한 것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들에게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면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갔다 귀국하지 못한 한인들에게는 사할린 리스트가 있다. 박노학, 그 자신이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일본인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서슬퍼런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귀환 사할린 한인과 고국의 가족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그가 작성한 '화태한국인 귀환희망자 명단'은 아직도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1958년 일본으로 귀환한 이후1988년 사망할 때까지 박노학은 〈화태귀환 재일 한국인회〉를 결성해 사할린에 남아있는 한인들과 고국의 친척들을 편지로 연결해주고, 가족상봉을 주선했다. 개인적인 활동에 한계를 느낀 그는 이미 지난 72년부터 방송을 통해 사할린 이산가족찾기를 진행 중이던 KBS 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에 그가 작성한 7천여 명의 명부와 각종 자료, 그리고 1440통에 달하는 사할린 동포들의 가슴 아픈 편지를 전달하면서 가족찾기를 의뢰했다. KBS 라디오는 이를 계기로 박노학 선생의 활동을 그린 3.1절 특집프로그램 '지워지지 않는 진실, 사할린리스트'를 한민족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故 박노학 선생의 육성 증언, 사할린 한인들이 육성증언으로 말하는 박노학, "그 사람 때문에 처음으로 한국의 친척과 편지했다.", 잊혀진 사할린 한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곳은 KBS 한민족방송뿐, 전파는 철의 장막을 뚫고 그들에게 고국이 있음을 알려줬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박노학 선생의 공헌은 '일본과 소련의 적십자회담에도 영향줬다.'며 일제강점 아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되는 KBS 소장 사할린 한인 편지와 박노학이 작성한 〈화태한국인귀환희망자명단〉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인들을 강제 징용했다는 근거 자료가 됐다.

추진위원회의 다음 계획으로 故박노학 회장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다. 2025년에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김태익 회장과 전화 통화로 사할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톤 도카 감독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공동작업을 제안했다.

박노학 회장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아이디어는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사할린 한인 3, 4, 5세대 등 젊은 세대들은 러시아 사회에 깊이 동화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 그리고 조상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은 기억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자녀와 손주들에게 사할린 한인의 비극적인 역사를 가르쳐 일깨운다..

· 고국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역사적 조국으로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게 한다.

한국 정부가 사할린한인 귀한 문제에 무관심할 때 박노학 회장은 귀환 프로세스의 '엔진'을 걸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수천 명의 한인들이 역사적인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영화는 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기획되었다.

박노학이 남긴 중요한 정신적 유산을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박노학의 교훈은 한국을 단순히 '조상의 나라'나 임시 거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고국으로 받아들여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우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여러 정부가 방치했던 사할린 한인 문제에 눈을 돌리게 만든 박노학 회장의 삶과 업적을 대중적인 형태로 널리 알리고, 젊은 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박승의, '박노학: 집으로 가는 길' 다큐멘터리 공동 프로듀서, 전 사할린국립대 교수)

전 세계 한글학교에 'K-북' 7천 권 보급... 차세대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재외동포청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협약...70개 한글학교에 우수 한국도서 지원
문학나눔도서 보급으로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과 교육환경 개선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과 협력해 올해 전 세계 한글학교 70곳에 문학나눔도서 중심의 우수 한국도서 7천여 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한글학교와 재외동포 사회가 꾸준히 요청해 온 한국어·역사·문화 분야 도서와 교육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9월 2일 재외동포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동포사회의 독서문화 확산과 차세대동포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 한글학교를 발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 예산으로 문학나눔도서 중심의 우수도서를 선정해 해외 현지로 직접 배송한다. 양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한글학교가 필요한 도서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 세계 한글학교 70곳에 아동·청소년 도서, 소설, 수필 등 문학나눔도서로 선정된 우수 한국도서 7천여 권이 지원된다.

첫 번째 지원 대상 지역은 유럽, 러시아, CIS지역으로 향후 지역별로 순차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초까지 도서 선정과 수요조사를 마친 뒤 10월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순차 배송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한국 도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한글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우수 한국도서를 통해 우리 문학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가 바꾸고 싶은 제도, 직접 제안해 주세요"

재외동포청,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개선 과제 발굴
9월4일까지 국민 · 재외동포 제안 접수...불합리한 제도 · 관행 개선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경험했다면 직접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4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재외동포의 일상생활이나 국내외 활동 과정에서 불편·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행정 관행 등이다.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26.3.6.)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1차 과제 발굴을 통해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사업 추진 ▲베트남 귀환여성과 자녀의 현지 정착 지원사업 일원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과제 발굴에서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제안뿐 아니라 재외동포청 전 부서와 직원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접수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전담조직에서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대표 과제를 선정해 9월 1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동포의 일상에서는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사랑의 의미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사랑의 정의와 어원은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이도 제각각입니다. 한편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는 옛 노래의 가사는 참으로 옳습니다. 사랑에서 우리는 결말이 정해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헤어지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헤어짐이 꼭 새드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헤어진다면 평범한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다'의 원 의미는 '생각하다'입니다. 중세국어에서 사랑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못 보면 그립고 괴롭고 아프죠. 애당초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다지도 슬프지는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은 참으로 명답입니다. 무관심에 아픔이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아프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생각이기에 사랑은 그대로 배려고 양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든 게 낫고,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아프고 싶었다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만큼 나도 고통스러웠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아픈 이보다 더 아프다면 그건 큰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거나 애끓는 사랑, 그것도 아니라면 신의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 어찌 슬프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아픕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는 사랑이 고통인지 알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게 삶이죠. 사랑하며 사는 삶이죠.

사랑은 상대의 아픔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회자정리(會者定離),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애별리고(愛別離苦)인 줄 알면서도 그 가슴 가쁜 기억으로, 그 추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서로 아팠던 기억이 추억이 되고,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픔까지 모두 사랑이 되죠. 그런 사람이 사랑이라면, 식구 같은 사람이 없죠. 사랑에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루 더 기쁘고 하루 덜 슬프기를 빌어봅니다. 큰 욕심보다는 하루를 줄이고, 하루를 늘이는 거죠. 되돌아보니 사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덜 아프기 바라고 더 기쁘기 바라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아프고 딸, 아들은 사랑받았기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식은 내 짐을 대신 들고, 저만치 걸어가고, 스스로 아프지만 기쁜 사랑을 합니다. 난 그런 자식을 멀리서 보면서 사랑하며 아파합니다. 사랑하기에 아프고, 아프기에 기도하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애씁니다. 사랑 참 아프지만, 사랑하고 살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싶습니다. 사랑 참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이 삶이 행복입니다.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의 큰아들은 작년에 일본으로 가서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곳을 지키고 있고, 그리움을 사랑으로, 고통을 사랑으로, 기쁨을 사랑으로, 행복을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диктан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берут статистику по всем регионам. Эти данные помогут понять, насколько граждане готовы к жизни в цифровом мире, какие темы вызывают сложности и где нужно усил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Результаты также используют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учебных курсов в вуза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사할린주 동물원, '전시관의 이면' 관람에 초대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엑 동물병원과 동물들의 먹이공급처를 둘러보고, 동물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9월 5일 사할린 동물원에서는 '동물원 전시관의 이면'이라는 주제에 따라 관람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장소에 가볼 수 있고, 평상적인 전시관 뒤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관람은 오후 12시 45분에 시작되어 관람객들에게 동물병원을 비롯해 먹이공급소, 실험실 중 한 곳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활동으로 관람객들은 직접 손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과제를 준비하고,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떻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도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며, 관람 인원에 제한이 있어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приглашает на экскурсию по «закулисью»

Гости смогут заглянуть в ветеринарную клинику и кормоблок, а такж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обычном занятии для животных.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5 сентября проведет тематическую экскурсию «Закулисье в зоопарк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опасть в места,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закрыты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и узнать, как проходит работа с животными за пределами привычных экспозиций. Экскурсия начнется в 12:45. Гостям покажут ветеринарную клинику, кормоблок и одну из лабораторий. Самой необычной частью программы станет обогащение среды животных: участник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подготовят для них задания с угощениями и посмотрят, как обитатели зоопарка справляются с такими «головоломкам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экскурсии — около двух часов.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поэтому участникам нужно заране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사할린 〈농장학교〉, 치즈 만들기 교육

사할린에서 올가을 로스셀호즈반크(러시아 농업은행)의 기획 제14기 '농장학교'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농장학교의 참가 자들에게는 치즈제조의 정밀연구와 함께 '축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예비 농부들은 원유 선별과 배양균 및 효소 사용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치즈제품 생산과 상표 붙이기까지 치즈 생산의 모든 기초단계를 배우게 되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은 기초 지식에서부터 전문적인 기술까지 폭넓게 다룬다.

주최 측은 교육 참가자들이 치즈의 새로운 생산방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농축산업을 구축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 예상하고 있다.

이번 14기를 위한 교육과정의 주제는 예비 참가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는데 로스셀호즈반크 사할린 지부는 이 기획에 참가를 원하는 농부와 참전용사들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분 응답자들의 '축산'과 '치즈제조' 방면에 대한 선택을 고려했다. 〈농장학교〉는 농부와 개인 농장주를 비롯해 오직 농장산업에 종사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과 실제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참가자들은 농장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기존의 농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지역 정부 부처와 함께 기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장학교 교육은 '러시아의 농촌'과 '식량안보를 위한 기술확보'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은 제 14기 농장학교에 등록과 개강의 정확한 날짜를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В «Школе фермера» на Сахалине обучат сыроделию

На Сахалине этой осенью планируют запустить 14-й поток проекта «Школа фермера»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а. В этот раз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ожат обучени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с углубленным изучением сыроделия.

Будущие фермеры разберутся во всех основных этап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сыра: от выбора молочного сырья, заквасок и ферментов до изготовления разных видов продукции и ее маркировки.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как базовые знания, так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обучение поможет участникам не только освоить н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но и понять, как выстроить собственный агробизнес.

Тему нового потока определили с учетом интересов будущих учас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а провел опрос среди аграриев и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Больше всего голосов получили направления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и «Сыроделие».

«Школа фермера» помогает фермерам, владельцам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 и тем, кто только планирует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научиться запускать агробизнес с нуля или развивать уже действующее хозяйст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реализуют вмест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партпроекта «Российское село»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 регистрации на 14-й поток и точных сроках начала обуч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а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